

광주 최고령 유권자 114세 박명순 할머니

# “국민으로서 투표 당연히 해야 할 일 오늘 아들과 함께 투표하러 갑니다”

평생 한번도 투표 빠진 적 없어  
후손들 위해 소중한 권리 행사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박명순(여·114세)할머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날인 9일, 아들과 함께 투표장을 찾아 투표할 예정이다.

1903년 8월생인 박할머니는 올해로 114살이다. 그동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한 박할머니는 ‘이번 투표를 살아 생전 마지막 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드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6·25전쟁 중에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1952년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이 생겼다”며 “그 당시에는 고향인 영암에 살았는데, 첫 대통령 선거라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부터 4대까지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으로 사라졌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16년 만에 부활했다. 박 할머니가 1987년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선을 포함해 이후에 시행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는 점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최고령자 박명순(여·114) 할머니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문흥1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예정이다.

감안하면, 역대 모든 직선제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셈이다.

평생 영암에 살다가 약 20여 년 전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 광주로 이사를 온 박할머니는 처음 광주에서 투표했을 때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대중씨

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인데 정지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가족회의까지 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투표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 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박할머니는 또 “옛날에는 못살고 못 먹던 시절이라 국민을 배부르게 해주고 등따습게 해줄 대통령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굶어 죽어 가는 일이 없으니 우리 자식, 손자들을 비롯한 젊은 층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뉴스를 통해 일자리 못 구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접할 때면 지금이 경제·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 더 바랄 게 없지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이어 “오래 살다 보니 정부 수립 초기 부정선거, 유신체제를 겪고 지금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건강을 잘 유지해 다음 선거 때도 투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어버이날 아이들의 재롱  
어버이날인 8일 광주 어울수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타운에서 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무릎에 앉아 재롱을 피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세월호 4층 여학생 객실 진입로 확보

대선 투표로 오늘 수색 중단

내일부터 본격 수색 나설 듯

단원고 여학생 2명의 행적이 마지막으 로 목격된 4층(A데크) 객실 진입로 확보를 위한 첫 구멍이 뚫렸다. 이르면 10일 여학생 객실 수색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인 9일에는 현장 수색자들의 투표를 위해 잠시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8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습팀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여학생 객실이 있던 세월호 4층(A데크) 좌현 전장에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사각형 구멍을 뚫었다. 산소 절단기로 해당 부분 철판을 잘라낸 후 크레인 줄에 철판 모서

리 부분을 연결해 뜯어냈다.

수습본부는 이날 선체 하부를 절단해 구멍 2개를 확보하고 약 30cm 간격으로 구멍 4개를 더 뚫어 객실 수색에 이용할 계획이다. 구멍 6개를 뚫는 작업을 10일 오전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제거와 안전 장치 설치작업을 한 후 수색을 시작할 방침이다.

여학생 객실이 있던 4층(4-10) 구역은 침몰 당시 충격으로 곳곳에 구조물이 맞닿아 협착된 부분이 많지만, 필이나 지장물이 덜 쌓여 수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수습본부는 보고 있다.

수습본부는 또 수색 작업이 더딘 4층 좌현 좌현 중심부(4-7구역)에도 오는 10일께 가로세로 2m 크기의 구멍을 뚫어 지장물 제거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유류품 세척대물 작업현장에 추가 설치했다. 2인 7개 조가 동시에 펠 세척 작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장에는 2인 10개 조가 동시에 세척대에서 분류 작업을 해 왔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세월호 선체 수색에서는 교복 상의, 가방 등 미수습자 유류품만 나왔을 뿐 사람의 뼈는 수습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나왔던 진도 침몰해역 수습수색에서도 추가 수습 소식은 없다. 수습수색팀은 이날 정오쯤부터 선미가 맞닿아있던 2개 특별구역에 대한 횡 방향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8일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1188점(인제 96점 포함), 뱃조각은 757점(수습수색 24점·사람 뼈 추정 1점 포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투표하면 무료 커피에 영화·공연 할인...‘국민투표로또’ 추첨 상금도

투표 독려 이벤트 다양

‘투표하고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 마시자’

9일은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공연장·극장 등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투표 참여를 응원하고 있다.

‘청년당 광주시당 준비위원회’는 20대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인증샷 이벤트를 펼친다. 투표 당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청년당 광주시당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8명을 뽑아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청년당은 또 투표율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광주시 서구 지평동에 위치한 ‘투어헤어’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시술받은 고객을 한해서 5만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제공한다.

투표 하고 직접 인증샷을 올리 이벤트에

참여하는 ‘국민투표로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민투표로또는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면 로또복권처럼 상금을 주는 것이다. 1등 최대상금은 500만원(1명), 2등 200만원(1명), 3등 100만원(1명)이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http://voteforkorea.org)에 접속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로그인한 다음 자신의 투표 인증사진과 휴대폰 번호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제공한다. 8일 오후 5시까지 23만5726명이 응모했다.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때 더 많은 시민이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모인 후원자는 874명, 후원금액은 795만원이다.

공연장·극장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컬 ‘청년 마켓 히어로’는 투표 인증샷을 보여주면 9일(오후 7시30분) 하루 7700원(정가 4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박스에서 입장료 할인이벤트를 펼친다. 또 동반 3인까지는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청년마켓 히어로’는 재래시장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섯 청년들의 이야기를 유쾌한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문의 062-360-8433.

메가박스도 대선 투표에 참여한 후 인증을 하면 일반석에 한해 6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쇼미 더 보트’(SHOW ME THE VOTE) 행사를 진행한다. 또 할인 받은 티켓을 해시태그(#투표인증 #메가박스 #쇼미더보트)를 사용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관람권을 증정한다.

롯데시네마는 투표 참여를 인증하면 스위트콤보(팝콘 1개, 탄산음료 2잔)를 5000원에 살 수 있는 이벤트를 9일부터 14일까지 마련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불법 하도급에 인사비 명목 수천만원 받아

건설사 대표·임원 적발

순천경찰은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전남의 한 종합건설사 대표 김모(38)씨를 불합자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이 회사 임원 오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종합건설사 대표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뒤 8차례에 걸쳐 이들 하도급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임원인 오씨 등은 하도급 계약을 주도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6곳으로부터 모두 8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오씨 등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을 건넨 전 문건설업체 대표 조모(48)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관급용 준설모래 적재량이 부족하자 하도급업체 대표 조씨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순천시청 공무원 구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음주 운항 선장들 ‘딱 걸렸네’



○황금연휴 기간에 술을 마신 채 야짙한 음주 운항을 한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

○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 선적 D호(0.76t) 선장 문모(48)씨와 Y호(4.98t) 선장 박모(64)씨가 조업에 앞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가 여수 금오도와 고흥 외나로도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된 결과,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6%와 0.053%가 나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읍 삼다리, 대로점**

대지 523평, 개발촉진지구  
최저가 311,000,000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대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321,000,000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대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대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평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탁장 용자 6,000만원, 열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